

### Cover Story 공익을 코딩하는 사람들

# 개발자들이 돌고래를 보호하는 방법

남방큰돌고래는 한반도 해역의 30여 고래류 중 개체 수가 가장 적다. 해양 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마크)에 따르면, 제주 해역에서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100~120마리 수준이다.

해마다 15~25마리 정도 새끼가 태어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년간 개체수가 늘지 않는 건 그만큼 폐사하는 돌고래가 많다는 뜻이다. 제주에서만 발견되는 해양보호생물이지만 생명을 위협받는 처지다. 해양 생태 전문 비영리단체들은 주요 원인으로 관광 선박을 꼽는다. 선박이 돌고래에 돌진해 부딪히거나 선박 스크류에 지느러미가 잘려 나가기도 한다.

현행 해양생태계법에 따르면, 남방큰돌고래를 포함한 해양보호생물에 50m 이내 선박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제는 해상에서 돌고래와 선박 간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비영리단체에서 신고해도 입증에 어려움이 따른다. 벌어진 상황은 반복된다.

돌고래를 구하기 위해 IT 개발자들이 나섰다. 각자 본업을 가진 개발자들이 모여 바다에서 헤엄치는 돌고래의 행동을 분석해 탐지하고 선박 간 거리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드론 영상 분석 기술을 개발 중이다.

#### 비영리와 개발자가 만나면

DVA랩(디바랩, Drone Video Analysis LAB)은 지난해 8월 결성됐다. 파일럿 모델을 만든 1기에는 AI 개발자 11명이, 지난 7월 출범한 2기에는 14명이 모였다. 너울 치는 바다에서 돌고래를 영상으로 촬영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DVA랩을 이끄는 한서우 랩장은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빛 반사를 제거하는 모듈을 만들고 드론 촬영 높이와 영상 속 개체의 실제 크기, 그리고 움직이는 선박과 돌고래 간 거리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능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 분석 자료가 현행법 위반의 입증 증거로 쓰일 만큼 정확도를 높이고, 생태보호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까지 구축하는 게 올해 목표”라고 했다.

AI 개발자들이 휴일을 반납하면서 비영리를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DVA랩은 지난해 카카오택스와 모두의연구소가 함께 진행하는 ‘테크포인팩트’의 지원을 받아 시작했다. 사회문제 해결하려는 비영리단체와 IT 전문가를 연결해 기술 기반으로 사회 변화를 만드는 사업이다.

해양동물 생태를 연구하는 비영리단체 마크는 드론 영상 분석의 어려움을 문제로 정의하고, 개발자들에게 SOS를 보냈다. 기술 개발에 필요한 전문 영역들이 정해지고 개발자들이 모였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DVA랩 1기 개발자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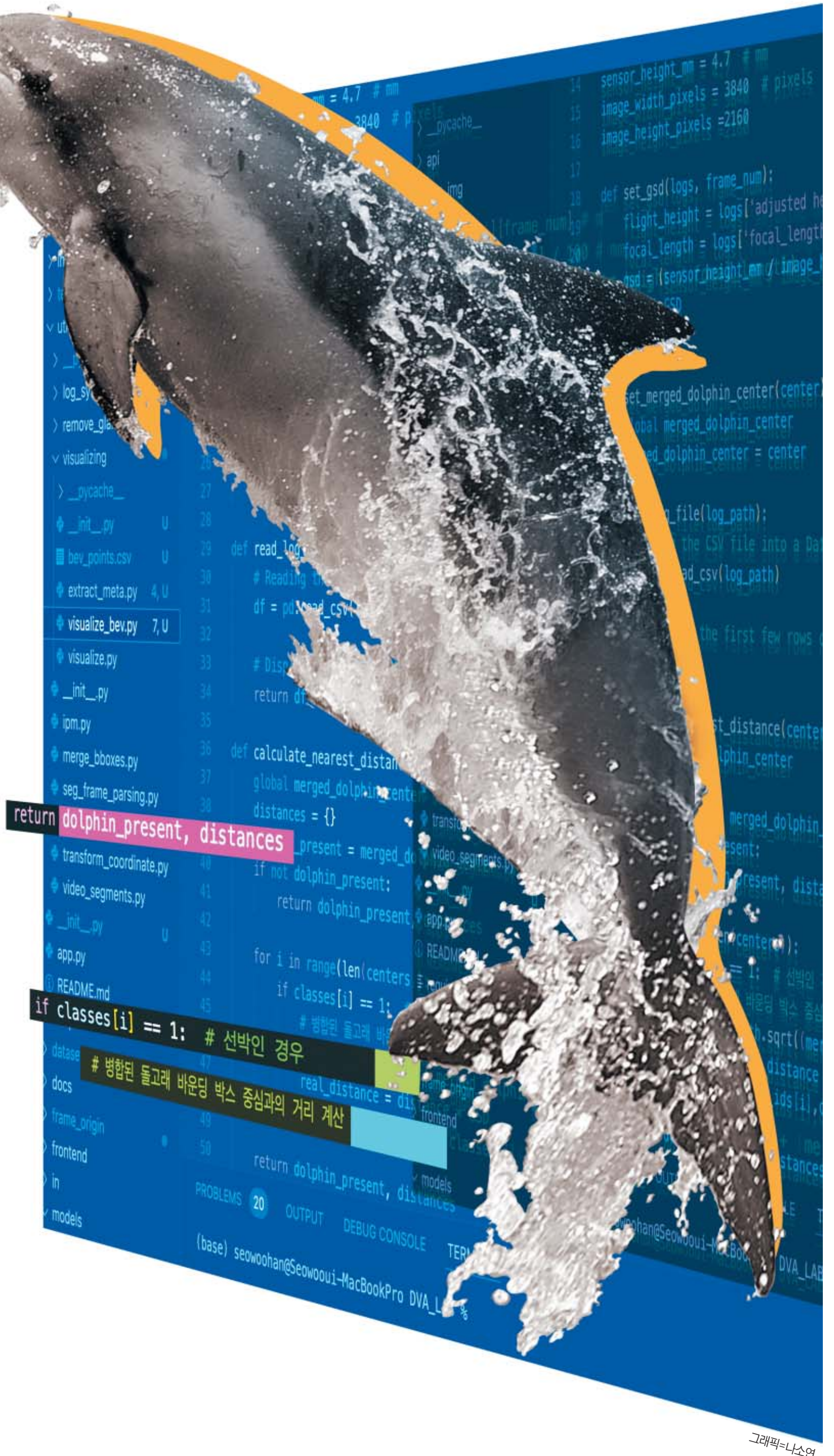
사회문제 해결에 뛰어든 개발자들은 다른 조직에 속한 사람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로 배우고 성장하게 된다. 한서우 랩장은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 개인적으로 개발 포트폴리오도 쌓고 논문도 쓸 수 있다”며 “특히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가치관과 관심을 원하는 방향으로 실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AI 개발자들의 커뮤니티 ‘가짜연구소’에서도 비영리 지원 연구가 이뤄진다. 올해로 설립 4년차 비영리임의단체로 개발자 4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실행한 프로젝트는 180개가 넘고, 실제 프로젝트 수행 인원은 누적 1000명에 이른다.

연구소를 이끄는 김찬란 대표는 SK텔레콤에서 AI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김 대표는 “대기업부터 스타트업, 프리랜서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AI 개발자들이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영리 분야의 사람들과 연결될 기회가 부족할 뿐 활동 의지가 강한 개발자들이 많다”고 했다.

▶ C3면 계속

문일요 TheButter 기자



그레픽=나소연

#### 버터폴 (Butter Poll)

## NGO 연봉 8000만 원 제한... 여러분의 생각은?

국내의 공익 분야에서 일어나는 이슈에 대한 독자의견을 묻는 ‘버터폴(Butter Poll)’ 두 번째 설문입니다.

이번 버터폴 주제는 NGO 연봉을 사실상 8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 대한 오랜 논란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11항에는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의 연봉이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인건비로 보지 않습니다. 이 인건비를 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 승인을 받지 않으면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를 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임금 상한선이 있는 셈입니다.

이 규정은 지난 2012년 세법 개정 때 도입됐습니다. NGO의 인건비 과



다 지급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2배 넘게 올랐지만 임금 상한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국내 다른 산업은 물론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규정입니다. 국내 NGO의 연봉 상한 8000만 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 ▶ 지난 설문 결과

‘유산기부 얼마까지 가능?’이라는 온라인 설문에 총 120명이 응답했다. 설문 결과 유산기부 의향이 있는 사람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의 10% 기부’를 선택한 비율이 43.3%로 가장 많았다. 20% 기부하겠다는 응답이 20%로 뒤를 이었다.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는 비율은 10%, 전액 기부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7%였다.

#### Inside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 인터뷰 C2

대전에 도입된 저상버스 예약 시스템 C3

시민들이 찾은 종이팩 재활용 솔루션 C4

현대차정몽구재단 임팩트스타트업 키운다 C5

강대성 대한사회복지회장 인터뷰 C6

이랜드 SOS위고 “위기가정 3일 만에 지원” C7

비영리 리더 20인, 더버터에 바란다 C8

# “아동·청소년 문제 해결할 협력자들을 기다립니다”

##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 인터뷰

보호받아야 할 나이에 보호자가 된 아이들이 있다. ‘영케어러(Young Carer)’는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가족이나 친척을 간병하거나 돌보며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을 가리키는 말이다. 영국, 호주, 미국 등에서는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지만 한국에는 영케어러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도, 지원체제도 없다.

지난 9일 만난 황영기(72) 초록우산 회장은 이들을 ‘가려진 아이들’이라고 불렀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를 돌보는 아이들을 효자·효녀라 부르며 기특해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아이들에게 미뤄놓고 외면한 셈이죠.”

한국에 살지만 한국말을 못 하는 이주배경아동, 온라인 도박의 뒷에 걸린 청소년 문제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황영기 회장은 “가려져 있던 문제들을 꺼내 세상에 알리는 일이 초록우산 같은 대형 비영리단체의 책무”라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 변화를 만드는 방법

“대형 단체의 책무라는 말이 웬지 반갑네요.

“초록우산은 연 30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 대형 단체입니다. 전통적인 아동복지 사업은 누구보다 잘하고 있지만, 우리 단체의 일반 근면 성실하게 챙기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규모에 맞는 더 큰 차원의 ‘소셜임팩트’를 생각하고 행동해야죠.”

### -예를 들자면요.

“소셜임팩트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책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해요. ‘여기에 이런 시각지대가 있습니다’ 하고 문제를 제기한 뒤에 필요한 정책과 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게 정부를 설득하는 역할까지 초록우산이 하려고 합니다.”

### -전략적인 접근이네요.

“그렇죠. 같은 맥락에서 올해 새로 시작한 게 있어요. 매년 5월에 초록우산이



소셜임팩트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책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해요

‘아동행복지수’를 발표합니다. 아이들에게 10분 단위로 자기 행동을 기록하게 한 뒤에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어떤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분석하는 작업을 하죠. 예전에는 대상자가 500~1000명 정도에 불과했고 지역별로 균형 있게 표본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 자료나 연구자료로 쓰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판을 키웠습니다. 대상자를 전국 17개 시도에 골고루 분포시켰고 참여 인원도 1만 140명으로 늘렸어요.”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왔겠네요.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냐고.

“전남과 경북의 아동행복지수는 어떻게 다른지, 더 세부적으로는 강남 3구와 비강남권은 어떻게 다른지까지 분석이 가능했겠어요. 지난 어린이날에 간단한 결과만 공개했는데 앞으로 세부 내용을 기반으로 학술 대회와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해요. 특이점들을 찾아낸 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각 지자체장, 교육감, 교사들과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에요. 분석 결과를 정리해 직접 정책 제안도 할 겁니다.”



이성영 영상미디어 기자  
지난 9일 만난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가려져 있던 문제들을 꺼내 세상에 알리는 일이 초록우산 같은 대형 비영리단체의 책무”라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사안의 심각성과 달리 정책적으로는 후순위로 밀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영케어러라고 불리는 가족돌봄아동 문제예요. 저는 이 문제가 빠른 시간 내에 구조적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족돌봄아동 지원법’이 제정될 수 있게 올해도 계속 활동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 -또 어떤 문제들이 시급한가요.

“이주배경아동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출생 아동 수는 줄고 있지만 이주배경아동 수는 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자랄 수 있게 언어 문제와 학습 격차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줘야 해요. 또 온라인상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온라인 세이프티’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올해 1월 미국 상원 법사위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추지 추 틱톡 CEO를 불러 호통을 쳤어요. ‘당신들 플랫폼에서 어린이들이 위험한 콘텐츠에 노출되고 거래에도 이용되고 있다. 막을 수 있는 수단과 재력이 있는데도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고요. 기업인들이 그 자리에서 사과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 새로운 협력과 기부를 꿈꾸며

황영기 회장은 삼성증권 대표, 우리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회장,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지냈다. 2022년 8월 제10대 초록우산 회장으로 취임했고 2023년 2월에는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을 맡았다.

-회장 취임 후 2년간 혁신적인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름을 ‘초록우산’이라고 바꾼 것도 그렇고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라는 이름이 길잡이 같아요. 요즘은 다 줄여서 이야기하는

시대니까 브랜딩을 위해서 짧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린이재단이라는 이름이 사업 영역을 제한하는 느낌도 있었고요. 실제로 이주배경아동, 자립준비청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상자 중에는 중고생도 많고 20대 후기청소년들까지 포함돼 있어요.”

-올해 처음 시작한 ‘아동·청소년 분야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도 궁금합니다.

“다음세대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비영리스타트업을 선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설립 전 단계의 극초기 팀도 지원합니다.”

-신생 단체의 성장을 돕는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비영리단체들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모금이 안 돼요.

좋은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가지고도 버티지 못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초록우산은 이 길을 먼저 걸어온 선배 단체로서 후배 단체들의 후원자가 돼주려고 합니다.”

-대형 단체의 책무인가요.

“대형 단체의 책무인 동시에 소셜임팩트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이죠. 초록우산 혼자서 아동·청소년 분야의 모든 난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전문성과 혁신성을 가진 다른 단체들과 협력하면 더 큰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으로서 업계 전반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기부 문화 활성화가 가장 큰 고민이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니까요. 영케어러에게 필요한 시간이 하루 4시간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든 놀이든 할 수 있는 4시간의 자유를 주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대한민국에 아직 가족을 돌보는 아이들이 있어? 얼마면 해결할 수 있어?’ 하며 나서는 큰 기부자가 나타나면 좋겠어요.”

-빌 게이츠가 9조 원을 투입해 지구상에서 소아마비를 종식한 것처럼요.

“‘빅벳 필란트로피’라고 하죠. 하나의 사회문제에 집중하며 큰돈을 내놓는 기부가 한국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경기도 지역에 이주배경아동을 위한 특별한 학교를 지어줄 수도 있겠죠. 한국어 수업도 하고 보충 수업도 해주고 한국 아이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형태예요. 사회문제 해결에 진심인 기업, 고액 기부자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초록우산에는 58만 명의 ‘초능력자’가 있다. 아이들을 돕는 마음을 가진 정기 후원자들을 ‘초록빛 능력자’라는 뜻에서 초능력자라고 부른다. 황영기 회장은 “기업이나 부자들의 통 큰 기부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이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기부에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 모두 초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꿈같은 일이라고요? 계속 떠들다 보면 언젠가 이뤄질 것 같아요.” 김시원 TheButter 기자

## 소셜섹터 3분 읽기

### 기부금 거부의 역사

1999년 다일복지재단(現 다일공동체)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가 기부한 5억원 가운데 100만원만 받고 나머지 4억9900만원은 반환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씨는 비자금으로 지목된 70억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그런데 당초 반환을 약속한 70억원에서 벌금, 추징금, 세금을 제외한 26억원을 여러 비영리단체에 나눠 냈다. 재단은 성명서를 통해 “대다수 사회복지기관과 고귀한 자원봉사자들을 목적이거나 수단으로 쓰지 말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비영리 모금단체가 거액의 기부금을 거부하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하다. 순수성의 의심되는 기부금을 받자니 여론이 나빠지고, 안 받자니 재정이 아쉽다. 한 번 정한 원칙을 고수하지 못하면 훗날 돈을 가려 받는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대부분의 비영리단체들은 국민 정서를 우선했다. 기부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기부금 전달 의사를 세 번 연속 퇴짜 맞은 사례도 있다. 2020년 3월 신천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20억원을 입금했다가 당일 반환당했다.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의 온상으로 비난받자 여론 반전을 위해 ‘120억원 기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신천지의 120억 기부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로 갔다가 거절 당했고, 대한적십자에서 전달하려다 이 역시 무산됐다. 코로나 당시 삼성그룹은 300억원, 현대차·SK·LG는 50억 원씩 기부한 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규모다.

국민 정서가 고액의 기부금보다 무서운 건 외국도 마찬가지다. 2019년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구겐하임미술관,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은 세계 미술계의 기부 큰손인 새클러 가문의 기부금을 줄줄이 거부했다. 새클러 가문 소유의 제약사 피루파머가 마약성 진통제를 과잉 유통시켜 부를 축적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다. 피루파머가 만든 진통제로 미국에서만 50만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에는 영국의 국립초상화갤러리가 130만 달러(약 17억원)의 기부금을 거부하면서 “나쁜 돈은 거부한다”는 대열에 합류했다.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국내 비영리단체 희망조약들은 가수 김호중의 팬클럽이 전달한 기부금 전액을 반환했다. 음주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김호중과 관련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김호중의 팬클럽이 기부한 금액은 50만원이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가 여론 반전을 피한 행동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하느니만 못한 기부가 됐다.

문일요 TheButter 기자

조선일보 공익섹션 더버터(The Butter) 만드는 사람들  
취재: 김시원 문일요 최지은 박선하 김수연 / 공익 사업: 이영은  
문의 및 제보: thebutter@chosun.com (02) 3789-7861

## 멤지 칼럼

### MZ들은 왜 비영리를 떠나려 했을까

대학생 시절, 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소셜섹터’를 알게 됐다. 흘러 듯이 소셜섹터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이라니. 너무나도 멋지고 재밌어 보였다.

2020년 꿈에 더 다가가기 위해 고향 제주를 떠나 서울로 거주지를 옮겼다. 부족한 나의 역량 때문이었을까? 신입을 뽑지 않는 업계 분위기 때문이었을까? 코로나19 때문이었을까?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꽤 긴 무업 기간을 보냈다. 부모님의 지원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병행했음에도 어떤 날엔 한 끼로 라면, 다음 한 끼엔 남은 라면 국물에 햇반을 비벼 먹는 날도 있었다.

긴 기다림 끝에 기업 CSR 팀 파견 계약직 자리로 첫 근무를 시작하며 소셜섹터에 입문했다. 생각과는 다른 낯선 업무 환경에 불안감을 느낀 적도 있었지만 그 시간을 바탕으로 지금 근무하는 공익재단에 입사할 수 있었다.

재단에서 내가 맡은 첫 업무는 ‘2030 활동가 지원사업’이었다. 소셜섹터의 젊은 활동가들이 이직 혹은 업계 이탈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나와 유사하게, 어쩌면 더 어렵게, 소셜섹터의 좁은 관문들을 통과해 온 또래 활동가들이 어떤 이유로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을까?

그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을 해주고 싶었다. 유명한 사람의 강의를 듣거나, 노련한 선배의 숙련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닌,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의 이야기를 꺼내고, 연결되고, 환대받는 자리. 2030 소셜섹터 활동가들을 위한 대화형 네트워크 프로그램 ‘멤지(D.MZ)’는 이렇게 탄생했다.

지난 2년 동안 멤지에서 100명이 넘는 활동가들을 직접 만났다. 사회 초년생인데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바로 실무에 투입된 사람, 또래 동료 없이 15년 이상 차이 나는 선배들만 있는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 지원 사업의 과한 행정 업무에 지친 사람 등 각자 어려움을 털어냈다. 소셜섹터의 2030이라면 누구나 공



다음세대재단 제공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 로컬모티브에서 열린 ‘멤지(D.MZ) 알umni 파티’ 참가자들. 멤지에 참여했던 2030 소셜섹터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다. 그래서 매번 멤지 현장은 너무 재미있다. 나의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이자, 우리의 이야기가 되니까.

정혜윤 PD님의 책 ‘삶의 발명’에서 마음이 울렁이는 구절이 있다. ‘일상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 반복 속에서 나를 조금 더 앞으로 가보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 덕분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았지만 마음이 향하는 방향은 있었다. 어두운 날도 저 밑바닥까지 어둡지는 않았다.’ 멤지는 2030 소셜섹터 활동가들의 고민과 걱정을 근본적으로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활동가들이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왔다. 그게 네트워크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멤지를 찾은 활동가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에 힘들다고 하면서도, 아직은 소셜섹터를 떠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어떤 이는 이를 ‘애증’이라고 표현했다. 대부분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 지금의 일을 선택했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부와 명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했다. 이 과정에 번아웃이 오기도 하는데 고민을 털어놓고 건강한 대안을 나눌 수 있는 또래 동료가 있다면 적어도 도망가듯 이직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동기가 없어 서러웠는데, 마음 맞는 동료가 생겨 든든해요.” “일에만 매몰되어 놓쳤던 활동의 원동력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일에 대한 고민과 생각, 다양한 정보들을 나누며 많이 배우고 동기부여도 받았어요.” 멤지 참가자들의 남긴 소감을 읽으면 뿌듯해진다. 사업에 대한 투자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위한 투자다.

눈에 보이는 수치와 결과물이 없어서일까. 멤지 사업의 후원자를 찾는 게 쉽지 않다. ‘2024년 멤지(D.MZ) 사업 계획서’를 펼쳐놓고 후원 요청서를 작성한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겠다는 이 섹터로 들어온 2030 활동가들의 연결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이수경 다음세대재단 매니저



# “개발자 인력풀 수만에 이르면 다양한 사회문제 IT기술로 해결될 것”

1면 ‘공익을 코딩하는 사람들’ 계속



지난 2022년에는 삼성서울병원의 요청으로 간암절제술을 고도화하는 AI 가이드 개발을 수행하기도 했다. 한 외과 의료진의 요청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였다. 환자마다 간의 크기와 모습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간암 수술은 담당 의료진의 경험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당시 의료진과 개발자들이 협업해 수술 데이터를 학습한 AI 기술로 간암 수술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 가이드를 만든 사례다.

김찬란 대표는 “국내 기업에 소속된 AI 개발자들은 주로 서비스 개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회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렇다 보니 비영리에 쓰일 임팩트 있는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 개발하고 공유하고 확산한다

비영리 활동에 참여한 개발자들은 수 개월에서 걸친 프로젝트에 수행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공유와 확산이라는 개발자 특유의 문화가 긴 프로젝트를 해내는 원동력이 된다”고 설명했다. 개발 과정에서 얻는 성과나 실패 사례조차 나누고 알려준다는 설명이다.

실제 개발자들은 기술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소스코드를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 한서우 대표는 “소프트웨어의 대중화를 이룬 게 바로 코드를 공개하는 오픈소스”라며 “누군가가 올려놓은 코드에 a프라이(a’)을

없어서 재공유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실패한 페이지를 보면서 또 다른 누군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했다. 시형착오를 공유하면서 ‘생산-공유-확산’을 즐기는 일종의 직업 문화인 셈이다.

개발자들은 소스코드를 온라인 플랫폼에 업로드해 기술 수준을 높인다. AI 분야로 한정하면 미국의 ‘허깅페이스(Hugging Face)’, 중국의 ‘모델스코프(Model Scope)’가 대표적이다. 김찬란 대표는 “비영리와 개발자가 서로 닮은 구석이 있다”고 했다. 비영리 후원자들의 힘으로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을 제시하고 널리 퍼뜨리는 것처럼 개발자들도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공유한다는 것이다. 조승민 글래스미디어 대표는 “개발자나 스타트업들은 대체로 기술로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소

명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혁신 분야의 비영리단체 지원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 차원에서 AI 기술의 이로운 영향력을 전달하기 위해 비영리 연구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개발자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빅테크 기업이 나서 AI 기술로 이룬 혁신 사례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최근 엔비디아는 미국 연방정부 주도의 기후 과학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미터(MITER)’에 AI 슈퍼컴퓨터를 지원했고, 메타는 비영리 연구기관 ‘세계자원연구소(WRI)’와 함께 글로벌 숲지도를 만들어 무료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메타의 AI 산출 지도는 위성 이미지를 AI 기술로 분석해 모델이 분석해 세계 산림 규모와 밀도는 물론 나무의 높이도 파악할 수 있다.

김승일 모두의연구소 대표는 “개발자 인력풀(pool)이 수천 수만명에 이르게 되면 사회혁신가들의 다양한 문제 정의가 IT 기술과 만나 실현될 수 있다”며 “케이스가 쌓이면 비영리 업계도 현실적인 솔루션을 요구하게 되고, 개발자들도 비영리가 해결하려는 사회문제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술력만큼 중요한 건 ‘상상력’

최근 비영리 업계에는 AI 기술 대응이 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마치 ESG 열풍처럼 AI 기술도 언젠가 받아들여야 할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AI 기술을 비영리단체에 적용하는 방법을 업계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크게 세 가지 답이 나왔다. 첫 번째는 테크포인덱트처럼 사회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하나의 솔루션

을 만들기 위해 장시간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 최근 출범한 DVA랩 2기에는 랩장을 포함해 총 14명이 투입됐다. AI 모델 개발팀에만 엔지니어 9명이나 달라붙었고, 서비스팀에는 UX 기획자, 프론트엔드(FE)·백엔드(BE) 개발자 등 4명이 모였다. 두 번째는 개발자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서비스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방식이다. 조직만의 특성을 반영한 도구는 될 수 없지만, 비영리 업계 전반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다. 마지막은 비영리단체 직원들이 개발 업무를 직접 배워서 활용하는 것이다. 업무 생산성을 높여 행정 비용을 낮추고 단체의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세 가지 방법의 우선순위를 따질 순 없다. 다만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세 방법 모두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게 개발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기술이

가치 있게 쓰려면 AI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써 그 역할과 책임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루트임팩트는 지난 2월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 AI 전문가 강연과 실무 프로그램 ‘AI 포 체인지메이커(AI for Changemakers)’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을 맡고 있는 정승구 루트임팩트 성장지원팀장은 “우리 조직만의 AI 서비스를 만들려면 우선 어떻게 기술을 도입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이뤄져야 한다”라며 “조직마다 역할이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기술 도입 사례를 경험하면서 상상력의 한계에 갇히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등교육혁신원에서 기술로 사회문제를 발굴하기 위한 학생들의 상상력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진행 중”이라며 “데이터셋을 분석해 측정하고 발굴하는 능력이 탁월한데,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나 영케어러(Young Carer·가족 돌봄이동)를 발굴하는 데 AI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술 고도화가 이뤄지면 지원 대상과 기관을 매칭하는 서비스도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기술 개발은 결국 유지보수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비영리 사업에 대한 후원이나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버스도 예약이 되나요?

### 행복나눔재단 등 4개 기관 대전시 버스예약시스템 개발 휠체어 장애인 이동성 향상

휠체어 장애인 이희진(55)씨는 외출 전 애플리케이션(APP) 3개를 확인한다. 각각 장애인 콜택시, 지하철, 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이다. 요즘 제일 자주 사용하는 건 ‘위버스(webus)’. 휠체어로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예약할 수 있다.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이용가능한 저상버스 노선과 소요 시간이 뜬다. 이 가운데 적합한 버스를 골라 ‘탑승 예약’ 버튼을 누르면 버스기사에게 탑승 위치가 전송된다. 버스에는 “다음 정거장에서 저상버스 리프트가 사용될 예정이니, 원활한 탑승을 위해 통행로를 확보해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온다.

위버스를 사용하고 이씨의 일상은 크게 바뀌었다. 우선 버스기사가 정류장에서 있는 이씨를 못 보고 지나치는 일이 줄었다. 버스가 주 이동 수단이 되니 장애인 콜택시 배차를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외출을 포기하거나 약속 시간에 늦지 않아도 된다.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지하철역까지 서둘러 갈 필요도 없다. 이씨는 “출퇴근 시간이라도 걸치면 버스를 10분 중 한두 번만 겨우 탈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분 중 7번은 탄다”며 “버스 이용이 쉬워지면서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고, 활동 반경도 넓어졌다”고 말했다.

‘저상버스 예약 시스템’은 지난해 7월 대전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 서비스다.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저상버스 수를 늘리고 있는데, 왜 휠체어 장애인의 버스 탑승률은 그대로일까?”라는 질문에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행복나눔재단, 신탁사회공헌재단 등 4개 기관이 머리를 맞댔다. 단순한 방법으로 장애인의 버스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하다가 나온 아이디어가 ‘버스 예약 시스템 개발’이었다.

### 당사자가 개발자로 참여했다니

네 기관은 2021년 12월부터 솔루션을 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협력했다. 행복나눔재단은 전체 프로젝트 기획과 운영을 맡았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개발자로 일하는 위즈온협동조합에서는 위버스 앱 개발을 시작했다. 대전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버스 공공데이터를 오픈하고 정류장 등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고, 신탁사회공헌재단은 기금 후원과 임직원 자원봉사로 힘을 보탰다. 지금은 대전 시내 15개 운수회사까지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내부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협조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위버스 앱은 장애인이 겪는 사소한 고충까지 고려한 기능이 많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개발을 맡은 덕분이다. 개발자들은 지체장애인은 손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해 엄지손가락 하나로, 5회 이내 터치로 앱의 대부분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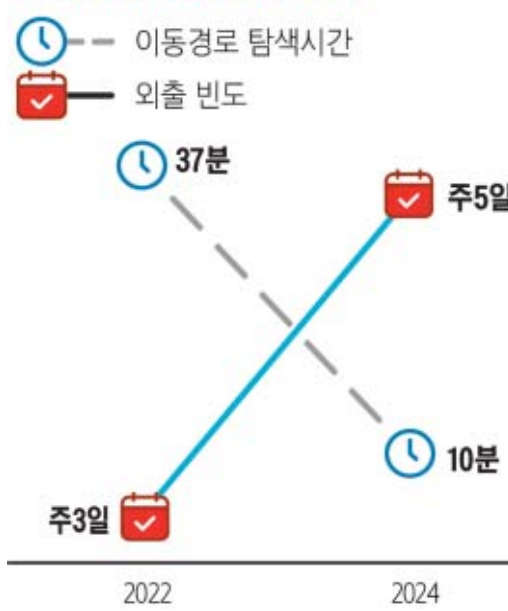
오영진 위즈온협동조합 이사가 저상버스에서 하차하고 있다. 대전에서는 위버스(webus) 애플리케이션으로 저상버스를 예약하면 알림을 받은 버스기사가 휠체어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다.

용자경험(UX)과 인터페이스(UI)를 구성했다. 불편 신고도 앱 안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된다. 민원이 접수되면 위즈온협동조합이 바로 대전시와 행복나눔재단, 버스 운수업체 담당자에게 전달해 현장의 문제가 신속히 개선되도록 한다. 기술로만 풀 수 없는 문제들도 있었다. 기존에 정부가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 앱에 제공하던 데이터에는 저상버스의 실시간 운행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 미리 정해진 시간표를 기준으로 정보가 표시되다 보니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저상버스 운행 현황은 사용자가 알 수 없었

다. 저상버스가 곧 도착한다는 정보를 앱으로 확인하고 정류장에 가도 일반 버스가 도착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런 문제는 대전시의 협조로 해결됐다. 대전시는 실시간 저상버스 정보가 들어있는 버스관리시스템(BMS) 데이터를 위즈온협동조합에 오픈했다. 지자체가 민간기관에 BMS 권한을 열어준 건 이례적인 일이다. 신지혜 대전시 버스정책과 주무관은 “정보화 부서와 협력해 철저한 보안성 검토 절차를 거친 후 공개를 결정했다”며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보안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는지 검증하고 위즈

### [대전시 저상버스 예약 시스템 임팩트] 휠체어 사용자 21명 설문 결과



온협동조합 사무실에 방문해 보안 교육을 별도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 장애인 버스 이용률 56배 증가

지난 10개월 동안 대전 휠체어 장애인의 버스 이용 횟수는 총 738회, 한 달 평균 70회가 넘는다. 시스템 운영 전이었던 2022년 연 13회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용률은 약 56배 증가했다. 행복나눔재단이 지난달 휠체어 사용자 21명을 대상으로 저상버스 활용에 관한 설문 조사와 FGI(집단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휠체어 장애인들은 저상버스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고 나서 외출 전 이동 경로와

수단을 탐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37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출 빈도는 주 3일에서 5일로 1.7배 증가했다. 이상현 행복나눔재단 세상 파일럿 본부장은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업하는 ‘콜렉티브 임팩트’ 방식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 말까지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금액은 총 3억8000만원. 행복나눔재단과 신탁사회공헌재단이 함께 지원한다.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진행된다. 남은 기간에는 버스 환승 경로 추천과 지하철과 기차 등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동 기능을 시스템 안에 추가할 예정이다. 행복나눔재단이 개발한 ‘휠비’ 앱과의 연계도 검토 중이다. 휠비는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안전한 도로 통행로를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앱이다. 휠비 앱에는 대전시 신탁 직원 112명이 지난해 7~8월 자원봉사로 취합한 휠체어용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에 대한 데이터 3만5342개도 포함된다.

최종 목표는 대전의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오영진 위즈온협동조합 이사는 “장애인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대전에서처럼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전시 모델을 참고해 버스 예약 시스템 도입을 시도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자은 TheButter 기자



플스토리 확인

# 시민들이 찾은 '종이팩 재활용' 솔루션

## 숲과나눔 초록열매 종이팩 컬렉티브

“열심히 씻고 말려서 버렸는데 재활용이 안 된다고?”

2019년 광주, 김지현씨는 이제껏 ‘종이팩’로 분리배출한 종이팩이 재활용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종이팩은 코팅된 종이라서 재활용 공정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종이팩을 재활용하려면 따로 모아 행정복지센터에 가져다주는 수밖에 없었다. 좀 억울했지만 곧바로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다. “우리 동네에서 나오는 종이팩들을 싸다 모아 재활용 해 볼까?”

지현씨는 친구 이세형씨와 계획을 세웠다. 종이팩을 많이 사용하는 ‘카페’를 중심으로 수거하기로 했다. 첫째, 카페에서 종이팩을 잘 행귀서 말려 놓는다. 둘째, 마을 주민 누군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수거한다. 셋째, 수거한 종이팩은 정해진 거점 공간에 모아둬다가 일정량이 모이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져가 화장지로 교환한다. 넷째, 교환한 화장지는 마을에 필요한 기관에 전달한다.

시민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때마다 두 친구의 눈에 띄었다.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진행하는 ‘풀씨’ 사업이었다. 둘은 ‘카페라떼클럽’이라는 팀명으로 응모해 최종 선정됐다. 카페라떼클럽의 아이디어는 풀씨의 지원으로 현실이 됐다. 그해 가을 광주 양림동, 도산동, 송정동에 있는 카페와 베이커리 21곳에서 5주 동안 4000팩을 모았다. 종이팩을 행정복지센터에서 화장지 120롤로 교환해 지역아동센터에 기부했다.

**시민의 작은 아이디어 전국으로 퍼지다**  
카페라떼클럽은 이 모델이 다른 마을에서도 작동할지 궁금했다. 2020년 이 모델을 실험할 마을을 모았다. 환경 관련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사업화 단계로 나아가도록 돕는 숲과나눔의 ‘풀씨’ 사업에 올라탔다. 6개 마을, 50개 가게가 참여했다. 10주 동안 약 340kg의 종이팩을 수거해 화장지 660롤로 교환했다. 화장지는 각 마을에서 필요한 시설에 전달했다.

“이게 되네?” 김지현씨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고 싶어 소셜미디어로 홍보했다. 모델은 전국으로 확산됐다. “종이팩은 종이 가 아니다”라는 카페라떼클럽의 슬로건도 꽤나 유명해졌다. 전국 곳곳에서 카페라떼



그래픽+스탠

클럽 모델을 지역 상황에 맞게 각색한 활동이 이어졌다. 마을 장터나 축제에서 종이팩을 수거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게 됐고, 제로웨이스트샵에 종이팩을 모으는 거점 공간이 생기기도 했다.

카페라떼클럽의 활동이 활발했던 광주 광산구에서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주민센터에 종이팩을 가져가면 포인트를 주는 제도를 시도하고, 마을 곳곳에 종이팩 무인회수기를 설치했다. 그 결과 2020년 6이던 종이팩 수거량은 2023년 45t으로 늘었다.

**숲과나눔, 흠여졌던 시민들을 조직하다**  
종이팩 재활용을 향한 시민들의 열정은 2023년 ‘초록열매 종이팩 컬렉티브’ 프로젝트로 연결됐다. 숲과나눔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자원순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고 정책까지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숲과나눔은 국내 종이팩 자원순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중추조직으로 나섰다. 2022년 국내 종이팩 재활용률은 13.7%에 불과하다(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자료). 연간 종이팩 배출량은 약 7만 5000톤인데 이 중 약 1만 톤만 재활용되는 것이다. 스웨덴(80%), 대만(70%), 미국(60%), 캐나다(56%) 등과 비교해도 재활용률은 현저히 낮다.

이처럼 숲과나눔 사무처장은 “숲과나

눔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풀씨’ ‘풀꽃’ ‘풀숲’ 사업을 진행 중인데 카페라떼클럽의 활동은 특히 성과가 좋았던 모델이었다”며 “흠여져 있던 시민들의 활동을 체계화하면 ‘근본적인 변화’까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중추조직으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종이팩 컬렉티브 프로젝트는 크게 ▲회수모델 개발 ▲정책 포럼 ▲인식개선 캠페인 등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종이팩 수거량을 늘리기 위한 회수모델 모델 실험은 학교, 아파트, 카페, 마을에서 각각 진행된다. 실험에 참여한 단체들은 수거량을 늘리기 위해 분리배출을 위한 ‘거점 시설’을 설치했다.

학교를 대상으로 실험 중인 ‘유어스텝’은 광주 초등학교 6곳에 초등학교를 돌출찍 넣는 종이팩 모양의 ‘종이팩 정거장’을 설치했다. 수거함은 단번에 눈길을 끌었고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종이팩 수거에 참여하고 있다. ‘도담마을사회적협동조합’은 서울 도봉구 아파트 20개 단지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100개 단지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은샘 도담마을 이사는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 두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에게 종이팩은 따로 배출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며 “시실만으로도 인식의 변화가 생각보다

빨리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멸균팩, 건축자재가 되다**  
정책 포럼에는 종이팩 순환 사이클에 포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특히 종이팩 재활용을 떨어뜨리는 주범인 ‘멸균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종이팩은 일반팩과 멸균팩 두 종류로 나뉜다. 멸균팩은 알루미늄 코팅이 더해진 팩으로 산소와 빛, 습기를 완전히 차단해 상온에서도 최소 6개월간 내용물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멸균팩이 플라스틱의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2014년 전체 종이팩 사용량의 25.3%를 차지하던 멸균팩 비중이 2022년 45%까지 늘었다. 2025년에는 멸균팩 사용량이 일반팩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포럼에서는 시도 단계에 있는 멸균팩 재활용 성과들이 공유됐다. 한솔제지는 최근 멸균팩을 이용한 백판지(박스 포장 원재료) 생산에 성공했다. 정식품은 이 백판지를 베지밀 포장 박스에 적용하기로 했다. 자연라이프는 아이쿱생협에서 생수를 담아 팔았던 멸균팩을 수거해 건축용 판넬을 개발했다. 전복경 자연라이프 대표는 “멸균팩을 이용한 건축자재는 해외에서는 이미 상용화됐다”고 말했다.

포럼에서는 재활용 종이팩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금이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종이팩 재활용이 안 되

는 결정적인 이유가 ‘돈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200ml 일반팩 한 개 가격은 2.8원. 3600개 수거해야 겨우 1만원을 넘게 번다. 배출량이 많지도 않다. 1000세대 아파트 단지에서 한 달에 배출되는 종이팩은 평균 60kg이다. 다 수거해 팔아야 1만6800원을 받을 수 있다.

한 번에 많은 양이 회수되는 게 아니라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도 어렵다. 일반 종이팩을 모아 1톤 트럭을 채우는 건 하루만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종이팩은 몇 달이 걸린다. 소량의 종이팩을 옮기기 위해 트럭을 운행하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 부담되는 일이다.

배연정 서울대 그린에코공학연구소 환경기술센터장은 “규모의 경제가 어려운 종이팩 특성상 회수, 선별, 재활용 모든 단계에서 지원금이 필요하다”면서 “폐기물로 처리하기에는 연간 배출되는 종이팩 7만 5000톤이 적은 양이 아니라서 매립, 소각 과정에서 환경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시민이 제안하는 4가지 정책**  
종이팩을 회수선별하는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솔루션을 만든 사례들도 포럼을 통해 공유됐다. 대흥리사이클링은 서울과 부산에서 ‘밀크웨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우유 급식을 많이 하는 어린이집에서 종이팩을 대량으로 수거한다면, 광학선별을 거쳐 종이팩과 멸균팩

를 분류한다. 이 종이팩들을 제지사에 제공해 재생 용지를 만든다. 최근엔 한솔제지와 국내 최초로 일반팩을 활용해 화장지가 아닌 고급 인쇄용지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에이치알엠(HRM)은 종이팩을 포함해 다양한 생활폐기물을 받는 ‘에코야얼스’ 애플리케이션(APP)을 개발했다. 사용자가 앱에서 회수를 신청하면 HRM과 협약을 맺은 택배사가 방문해 수거해 간다. 수거 택배비용은 HRM이 부담한다. 사용자에게는 1kg당 100원의 탄소중립 포인트가 적립된다. 강경모 HRM 팀장은 “일반 소비자들이 배출하는 종이팩이 최대한 재활용 업체로 전달될 수 있도록 HRM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에코야얼스 앱을 통해 환경단체, 제로웨이스트샵, 가정집 등 다양한 곳에서 종이팩을 보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환경부는 종이팩을 종이류와 함께 배출하라는 지침을 내세우고 있다. 이 지침 때문에 우리나라 종이팩 전체 배출량의 60%가 종이류와 함께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종이팩의 경우 플라스틱 코팅을 녹이는 재활용 공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종이와 함께 재활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은 “시민들의 노력 덕분에 올해 초 환경부가 종이팩 별도 배출 지침을 준비하는 등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면서 “이 지침이 아파트, 주택 등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이팩 컬렉티브 목표는 2026년까지 종이팩 자원순환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정하고 효과적인 재활용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오는 6월에는 지금까지 나온 의견과 성과를 종합해 시스템 확립에 필요한 정책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책안에는 ▲종이팩을 별도 수거 품목으로 지정하는 지침 개정 추진 ▲지자체 종이팩 수거 의무 강화 ▲종이팩 재활용 인정 품목 확대 ▲재생유지 등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촉진 ▲종이팩 배출 방안 홍보와 인식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장재연 이사장은 “정부와 산업계가 오랜 시간 외면한 종이팩 재활용 문제를 시민들이 해결하고 있다”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된다면 또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겠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은 TheButter 기자

## 이수영 자원 대표 인터뷰



김용재 영상미디어 기자

비영리스타트업 자원의 이수영 대표는 생산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아이들의 놀잇감으로 만든다. 지난 8월 만난 이 대표는 “교육적 가치와 환경적 임팩트에 귀 기울이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다. 스타트업으로 7년 넘게 운영하던 어린이 인문예술학교는 지난 3월에 문을 닫았다.

**어쩌다 사교육**  
-스타트업 비즈니스가 잘 안됐네요.  
-“오히려 반대예요. 아이들이 전용 공

## 폐기물, 놀잇감이 되다

쓰레기 문제 해결하고  
교육 격차를 줄이는  
프로그램을 운영

자원을 순환시켜  
탄소 발생과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면서  
기업과 비영리  
상생하는 구조

간에서 창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개인기 요인이었어요. 교육비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었어요. 한 학기에 10그룹 100명 가까운 아이들이 교육 센터를 드나들었어요. 프리미엄 교육 콘텐츠로 입소문이 나면서 대기자가 200명에서 다음

학기에는 400명, 또 600명으로 줄지 않고 누적돼 늘더라고요. 입학한 아이들의 82%가 5년 이상 다닐 정도로 만족도는 높았거든요.”

-킬러 콘텐츠가 뭐였나요.  
“아이들이 스스로 설계하고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교과 과목은 아니고 인문학과 미술을 결합한 수업이었어요.”  
-왜 사업을 확장하지 않았나요.  
“사업을 시작할 때 ‘교육 격차를 줄이자’라는 미션을 살리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역대 매출을 냈는데도 기쁘지 않았어요.”

-고민의 결과가 비영리 전환인가요.  
“영유아 시기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영리 성격의 사업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었어요. 정보가 빠른 학부모들이 찾는 수업이 아니라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비용 없이 받을 수 있는 전국구 수업이요. 돈을 벌면 결국 교육 격차를 심화하는 꼴이니까 결단이 필요했어요.”  
-그런 확신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 기록해 봤어요. 그걸 가지고

연세대 아동가족학 연구진과 스튜디오 했어요. 그래서 포착한 게 바로 ‘개방성’입니다. 아이들이 손으로 만지는 놀잇감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아이들의 양상이 달라져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지만 영리사업으로는 전국에 보급하기 한계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비영리**  
-기업들이 휴면자원을 보내주나요?  
“현재 7곳에서 정기적으로 소재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일이지만 사회문제 해결에 의지를 갖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다양한 형태와 물성의 소재를 보관하고 유통하는 게 가장 큰 과제죠. 우선 물류를 해결해야 기업과 파트너십도 확장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어떤 소재를 좋아하나요?  
“보통 40종 정도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찾는 건 오거트 용기입니다. 적당히 말랑하고 가위로 자르기도 쉽고요. 신발 밑창에 쓰이는 라텍스나 부직포, 목재 조각도 잘 써요. 소재마다 범용성 점수를 매겨서 아이들이 찾지 않으면 놀잇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빼고, 그 자리에 새 소재를 추가합니다.”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시설,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을 직접 찾아가서 교육해요. 매주 어린이 60명 정도를 만나고 있어요. 수업 때마다 수십 종의 놀이 소재를 바리바리 써가요. 수업에서는 목표표를 주지 않아요. 2시간 정도 진행하는데, 처음엔 교사도 아이들도 당황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익숙해져요. 아이들이 알아서 오늘 무엇을 할지 정하고, 협력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요. 정답에 대한 압박을 깨나가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뒤 자원의 모습은 어떻게요?  
“이탈리아에는 150곳이 넘는 기업으로부터 휴면자원을 제공받아 교육에 활용하는 ‘레미다(Remida)’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재활용 센터를 운영하면서 총 2750종의 다양한 소재를 학교에 보내고 교육 연구를 하고 있어요. 10년 뒤면 우리나라에서도 전국 교육 공간에 휴면자원이 놀이 소재로 배분되고 있을 거고 그 역할을 자원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교육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관련 연구도 멈추지 않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일유 TheButter 기자

# 현대차정몽구재단, '임팩트스타트업' 키운다

##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이루려는 가치는 무엇인가. 인생을 결단한 것인가. 역경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의지가 있는가. 그럼에도 현실 감각이 있는가.”

면접관들은 마지막 3차 면접을 치르러 온 스타트업 대표자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사업성 평가는 이미 완료한 상황. 심사위원들은 집요하게 물었고, 면접자는 마치 일기장 속 한 페이지를 열듯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느 면접자는 이렇게 답했다. “이 질문을 받으면 할 이야기가 많은데 그간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현대차정몽구재단의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심사에 올해 처음으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평가가 도입됐다. 1차 서류 심사와 2차 사업 평가 이후 치러진 사실상 최종 심사 단계다. 보편적인 스타트업 심사 기준은 사업성과 확장성이지만 재단은 기업가정신을 갖춘 창업가를 원했다.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 전략을 바탕으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이른바 '임팩트스타트업'을 선발하는 게 목표다.

최재호 현대차정몽구재단 사무총장은 “임팩트스타트업은 사회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해 사회와 환경,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창조하는 기업 형태라고 볼 수 있다”며 “재단은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임팩트스타트업을 키워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 존경받는 기업가를 육성하라

“기업가는 사회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동반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

현대차그룹 정몽구 명예회장의 기업가정신이 재단의 H-온드림 사업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재단은 지난 12년간 세상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창업가를 발굴해 왔다. 지난 2012년 사업 첫 해부터 지난해까지 임팩트스타트업 334개 팀을 육성했고, 이들 기업의 누적 매출액은 8950억원에 달한다. 선발 기업들은 그간 3054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내면서 일자리 6103개를 만들었다. 생존율은 84%에 이른다.

H-온드림은 재단 설립자인 정몽구 명예회장의 기업가정신에서 출발한 사업이다. 정 명예회장이 말한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고 또 지속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려움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는 도전 의식이 필요하다”는 철학을 재단이 기업가 육성으로 이어가는 중이다.

올해 선발된 임팩트스타트업은 총 20곳. 크게 설립 3년 이하의 인큐베이팅 트랙 10곳, 비즈니스 솔루션을 가진 액셀러레이팅 트랙 10곳 등 두 그룹으로 구분됐다. 구체적으로 ‘점점테라퓨틱스’는 장애아동의 특수 교육과 재활을 돕는 증강현실(AR) 게임을 개발하고, ‘파라스타엔터테인먼트’는 세계 최초로 청각장애

인 아이돌 그룹을 육성한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조직배양기술로 종묘 생산하는 ‘파이토리서치’, 분리수거 폐기물을 문진수거하는 ‘어글리랩’, 장애인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힐’ 등이다.

재단은 조직 성장을 위해 앞으로 5개월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인큐베이팅 트랙은 팀당 최대 7000만원, 액셀러레이팅 트랙은 팀당 최대 1억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교육 과정으로는 주제별 1대1 밀착 멘토링 시간인 오피스아워, 법무·노무·특허·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이 이뤄진다. 또 인큐베이팅 트랙에 특화된 리더십 강연과 액셀러레이팅 트

랙에 맞춘 전문 강좌도 준비됐다. 글로벌 진출 계획을 가진 우수 펠로를 대상으로 오는 9월에 싱가포르 현지 기업설명회(IR) 기회와 10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임팩트투자 컨퍼런스 ‘SOCAP 2024’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 펠로 커뮤니티를 만들어라

지난 16일에는 경기 화성 롤링힐호텔에 임팩트스타트업 대표자 30여 명이 한데 모였다. 현대차정몽구재단이 올해 선발한 H-온드림 12기 대표자 20명을 포함해 선배 펠로들과 멘토들이 만나는 1박2일 OT캠프의 첫날이었다.

재단은 올해부터 펠로 커뮤니티 강화

에 힘쓰고 있다. 올해 처음 OT캠프를 1박2일 워크숍 형태로 기획한 이유이기도 하다. 펠로간 대면하는 시간을 만들고 소속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다. 네트워크의 핵심은 소속감이다. 이들의 소속감을 한층 강화하는 데에는 멘토들의 역할도 크다. 멘토는 임팩트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활동 중인 사회혁신 리더 커뮤니티인 ‘H-온드림 라운드테이블’ 멤버들이 맡고 있다. 라운드테이블은 김영덕 혁신 고교 교문, 김정태 엠와이소셜컴퍼니 대표, 양경준 크립톤 대표, 이덕준 D3슈빌 리파트너스 대표, 제현주 인비저널파트너스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올해 액셀러레이팅 트랙에 선발

된 관중아마목포의 홍동우 대표는 “올해로 8년째 사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펠로라는 이름으로 깊게 네트워킹할 기회는 많지 않았다”며 “도시 생활에 지친 청년들에게 언제든 편히 쉴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을 만들어주겠다는 소실 미션을 이어갈 힘을 얻어간다”고 했다.

제주에서 해녀들의 이야기를 다닝으로 연결한 김하원 해녀의부부 대표는 “조직 구성원의 절반은 지역주민인 해녀고 나머지 절반은 외부에서 온 청년들이라 이들 간의 문화를 만들고 하나의 커뮤니티로 묶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라며 “구성원 간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겪은 시행착오는 당연하지 않았던

소중한 경험”이라고 했다.

### 비즈니스 모델 완성은 기업가정신

올해 심사에 참여한 라운드테이블 멤버들은 심사 단계에 ‘기업가정신 평가’를 추가한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양경준 크립톤 대표는 “H-온드림은 10년 넘는 역사가 있는 만큼 지원자들이 기본적으로 기업가정신을 갖추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전 단계에서 사업을 먼저 평가했을 것이고 조직의 가치를 더 뾰족하게 하는 창업가의 마인드를 한 번 더 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일하려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상주의자가 많기 때문에 꿈을 꾸면서 현실성은 유지하는 균형 감각에 주목했다”며 “한편으로는 명확한 비전으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창업가들의 이야기에 기업가정신을 다시 되뇌게 됐다”고 말했다.

사업 모델은 얼마든지 복제할 수 있다. 결국 그 사업을 지속하는 건 창업가의 몫이다. 김영덕 혁신의숲 교문은 “비즈니스 모델을 흔히 사업성으로만 따지는데 잘못된 접근”이라며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은 사업성과 함께 기업가정신까지 녹아든 완전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날 캠프에 참여한 권순우(10기 펠로) 알프레드 대표는 폐기물을 업사이클링해 고양이 전용 모래를 생산한다. 그는 “위기는 항상 있고 매 순간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창업자가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한동안 폐업을 고민하던 적이 있었지만 끝까지 버티고 버티 신제품을 내고 투자 유치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11기 펠로인 신원협 인베랩 대표는 ‘현대차 정몽구 스칼라십’ 미래산업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H-온드림 펠로에 선발된 케이스다. 신 대표는 “학생에서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재단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며 “학생 때 연구하던 생물다양성 관리 기술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관리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올해 12기 심사위원이었던 김정태 엠와이소셜컴퍼니 대표는 “스타트업이라는 법인은 창업가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중 하나일 뿐”이라며 “창업가의 세계관이 넓고 깊으면 얼마든지 그릇은 무한히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해마다 심사위원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팀이 계속 나온다는 건 임팩트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결과”라고 말했다. 오는 11월에는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한 단계 성장한 펠로들의 성과공유회가 열린다. 정무성 현대차정몽구재단 이사장은 “재단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출발점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람을 중심으로 둔 사회공헌으로 지구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임팩트스타트업과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일요 TheButter 기자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12기 선발 기업					
〈인큐베이팅 트랙〉			〈액셀러레이팅 트랙〉		
기업명	대표자	주요 사업	기업명	대표자	주요 사업
점점테라퓨틱스	김정은	장애아동 특수교육·재활을 위한 증강현실 게임 개발	루트파인더즈	김중국	디지털 포용 시 기술 에이블 테크 기업
어글리랩	서호성	분리수거 폐기물 문진수거 서비스 운영	파라스타엔터	차해리	세계 최초 청각장애인 아이돌 그룹 육성
핀힐	유영근	장애인 매칭 서비스 기업	파이토리서치	김연준	기후변화 대응 고기능성 종묘 생산
관중아마목포	홍동우	여행지를 고향처럼 느끼도록 하이퍼로컬 콘텐츠 제공	아타브엔터	이성찬	신원보호 메타버스 상점으로 멘탈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프롬하어	설지희	공예 문화 전용 플랫폼 운영	해녀의부부	김하원	제주 해녀 이야기를 예술로 풀어내는 로컬 식문화 그룹
빅오빌리티	서대규	도시 유희지 활용한 화물차 주차장 제공	필더랩	신다혜	온오프라인 문화예술 플랫폼 기업
세오너	이한결	노인 사용자 특화 식기 브랜드 '봄마음' 운영	이너시아	김효이	생분해성 소재 개발로 여성 전용 제품 개발
쓰리아이유루션	신준영	산업용 비파괴 성분 분석 장비 및 솔루션 제공	피트인	김세권	영업용 물류차의 전기차 전환 가속화 솔루션 제공
리힐	이지은	기업 규모에 맞춰 이산화탄소 포집 및 응용 장치 제공	브이피피엠	차병학	가상발전소 기반 재생에너지 거래 소프트웨어 관리
머쉬엔	정지현	버섯균사체 기반 식품 소재 개발	웍스메이트	김세권	빅데이터 기반 건설 일일직 중개 플랫폼

자료=현대차정몽구재단



▲ 현대차정몽구재단은 설립자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기업가정신을 이어받아 창업가 육성 사업을 10년 넘게 진행하고 있다.

▲ 지난 16일 경기 화성 롤링힐호텔에서 열린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OT캠프 현장.

## 임팩트Biz

# 'K-임팩트스타트업'의 활약을 꿈꾸며

최근 주목할 만한 글로벌 트렌드 중 하나는 임팩트이코노미(Impact Economy)의 빠른 성장이다. 2019년 매켄지(McKinsey) 보고서에 따르면 긍정적인 임팩트를 만들고자 하는 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 시장은 2014년 약 62조 원 규모에서 2018년 308조 원 규모로 4년 만에 5배 성장했다.

GIIN에 따르면 2022년에는 2000조 원 규모에 달해 8년 만에 30배 이상 급성장했다. 임팩트이코노미가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임을 의미한다.

임팩트이코노미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임팩트스타트업(Impact Startu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말 그대로 '임팩트'와 '스타트업'이 결합한 단어이다. 임팩트는 측정가능한 아웃컴

(Measurable Outcome) 즉 타깃 수혜자가 경험하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산출(Output)과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스타트업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제이커브(J-Curve)로 대변되는 빠른 성장을 추구하는 초기 단계의 조직을 의미한다.

임팩트스타트업의 성장은 임팩트의 크기 측면에서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기술 활용과 함께 해당 분야에 대한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능력 및 지식이 필요하다.

지난 2012년부터 3500개 이상의 조직을 대상으로 약 4.5조 원 규모의 임팩트 투자를 집행해 온 영국의 대표적 임팩트 투자기관 'Better Society Capital (BSC)'은 임팩트스타트업을 “긍정적 변화에 기여하는 솔루션을 추구하는 조직

으로서, 중장기적으로 강력한 임팩트 성과를 낼 수 있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조직이며, 또한 적절한 임팩트 업무관행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이라 말한다.

BSC가 제시하는 임팩트스타트업의 기본요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의 목적(Purpose)은 임팩트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리더십 차원에서 임팩트 창출에 대한 의지와 동기부여가 확실해야 한다.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BSC는 임팩트 선언문, 임팩트 커뮤니티케이션, 임팩트 관련 인증 여부, 임팩트 투자 획득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해당 사회문제에 대한 리더십의 당사자성이 높다면 설득력이 높아진다. 피봇팅이 자주 일어나는 스타트업 특성상 자칫하면 미션 드리프트(Mission Drift)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BSC는 이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다.

둘째, 임팩트의 목표수준과 함께, 실제 성취된 임팩트 성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해당 임팩트가 누구에게 어떤 변화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경험하게 하는지, 또한 이 변화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신뢰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임팩트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임팩트의 네비(수혜자의 수), 깊이(수혜자가 경험하는 변화의 정도), 길이(해당 변화의 지속기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임팩트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셋째, 임팩트 업무 관행을 정비해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좋은 임팩트 성과

가 있다고 해도, 임팩트 창출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거나 진정성 측면에서 비난받을 소지가 생긴다면 곤란하다. 이를 막기 위해 전 사적 차원에서 임팩트 선언문을 공유하고, 제품디자인, 비즈니스모델, 경영전략 등 모든 차원에서 조직이 추구하는 임팩트의 방향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창출한 임팩트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과정을 내외부 이해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사업진행 중 발생 가능한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하려는 책임 있는 노력도 요구된다.

일반 스타트업과 비교할 때 임팩트스타트업을 세우고 운영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그들을 돕기 위한

국가 및 사회 차원의 지원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그들이 창출하는 임팩트 성과로 정당화될 수 있다.

10여 년간 한국 임팩트생태계에서도 임팩트스타트업을 돕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 특히 현대차정몽구재단의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SK그룹의 SPC 프로그램 등이 민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최근에는 비영리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공공-민간 분야의 지원 노력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머지않아 글로벌 임팩트생태계에서 K-임팩트스타트업들이 크게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현상 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혁신단장

# “비영리에도 기업가정신이 필요합니다”

## 강대성 대한사회복지회장 인터뷰

명품 옷을 입은 열세 살 유관순 초상화가 대한사회복지회 회장실에 걸려 있다. 강대성(66) 회장은 “팝아티스트 ‘배드보스’에게 기부받은 작품”이라고 말했다.

“배드보스는 지난해 대한사회복지회 나눔대사로 위촉됐어요. 덕혜옹주, 도산 안창호 등 위인의 초상화를 명품 로고와 보석으로 장식하는 작가로 유명하죠. 작품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기도 하고 발달장애인 작가들과 공동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아, 요새 ‘뉴진스’로 핫한 개그맨 성호 씨도 저희 나눔대사예요(웃음).”

대한사회복지회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강대성 회장은 “70주년을 맞은 유서 깊은 단체에 혁신을 한 스펀 더했다”며 웃었다. “사회복지가 올드하다는 건 편견입니다.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발굴, 분석, 해결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대한사회복지회는 지금 ‘기업가정신’을 가진 임팩트 조직으로 거듭나는 중입니다.”

### 돈 버는 비영리

- ‘힘’ 한 그림들을 보고 나니 대한사회복지회가 더 궁금해집니다.

“작년 1월 16대 회장에 취임하고 명함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돌렸더니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두 가지였어요. 정부산하기관입니까? 사회복지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입니까? 전혀 다르게 알고 있던군요(웃음). 대한사회복지회는 영어원부터 노인복지관까지 생애주기 전체를 커버하는 민간 사회복지법인이에요.”

-역사가 이렇게 오래된 줄 몰랐어요.

“1954년 정부가 전쟁고아들을 위해 설립한 입양기관으로 출발했어요. 홀트보다도 1년 앞섰죠. 지금은 입양 업무도 하지만 청소년, 자립준비청년,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면서 27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발굴, 분석, 해결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대한사회복지회는 지금 ‘기업가정신’을 가진 임팩트 조직으로 거듭나는 중입니다

이신영 영상미디어 기자  
지난달 서울 역삼동에 있는 대한사회복지회 회장실에서 만난 강대성 회장은 “사회복지와 비영리에도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 산하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입양 사업이 내년에 정부로 넘어간다고 들었어요. 여러모로 변화의 시기네요.

“작년에 와서 보니 대한사회복지회 1층에 병원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입양 업무 때문에 병원이 꼭 있어야 했는데 이젠 법이 바뀌어서 병원이 없어도 됩니다. 병원에서 매년 7000~8000만 원 적자가 생겼던 걸 과감히 접고 1층 전체를 임대했

어요. 최근에 3층도 통으로 임대를 줬습니다. 자산 효율화를 통해 고목적 사업에 쓸 수 있는 수익이 오히려 늘었죠.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들여다보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해요.”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나.

“저출산, 초고령 시대에 맞춰 사업 영역을 고민하고 있어요.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많아요. 산

하시설 중에 ‘고양시니어클럽’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무척 재밌습니다. 노인복지관인데 사회적기업처럼 돈을 벌어요. ‘행주농가’라는 이름으로 어르신들이 직접 들기름, 참기름, 볶음참깨를 만들어 판매하는데 연 매출이 2억 원이 넘어요. 양장점이나 수선일을 했던 어르신들이 아끼웃이나 앞치마를 만들어 파는 ‘할머니와 재봉틀’ 사업도 잘된다고

해요.”

-어르신들 반응은요.

“너무 좋아하시죠. 본인이 일한 만큼 수익의 몫을 하나요. 고양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일거리가 없으면 건강이 더 안 좋아진다. 출근할 곳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역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최고의 사회적가치 창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형적인 사회복지시설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죠. 수익 사업을 하면서 스스로 자립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사회복지나 비영리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임팩트로 말한다

강대성 회장은 영리기업에서 30년(SK 에너지 상무, SK네트웍스 전무), 사회적 경제에서 5년(행복나래 대표이사)간 근무했다. 대한사회복지회에 오기 전 6년간은 비영리(굿피플 상임이사)에서 일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도 사회복지사예요. 사회적기업인 행복나래 대표를 맡으면서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했고 석박사를 밟았습니다. 영리에서 오래 근무했지만 사회복지의 중요성이나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의 전문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회복지 현상이 있었다면요.

“산하시설 중에 대구에 있는 ‘늘사랑 청소년센터’가 기억에 남아요. 범죄를 저지른 뒤 6호 처분을 받은 여학생 30여 명이 모여 지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그럼도 잘 그리고 춤도 잘 추고 겸손고시

를 치면 100% 합격이라고 해요. 센터장님을 비롯한 어른들이 아이들을 잘 보살핀 덕분이죠. 퇴소한 아이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물었더니 ‘센터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용기를 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감동이죠.”

-아이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킨 좋은 사례네요.

“전통적인 사회복지나 비영리단체는 대개 투입(input)과 산출(output)에 대해 이야기해요. 저는 직원들에게 ‘1억 원으로 어려운 이웃 100명을 도왔다’는 식의 이웃웃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즉 소셜 임팩트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해요. 늘사랑 청소년센터 사례처럼 임팩트 있는 사업들을 더 늘려가려고 합니다.”

대한사회복지회는 소상공인들이 매출액의 일부를 매월 어려운 이웃에 후원하는 ‘We대한 가게’, 청소년을 기부하는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We대한 학생기부’, 저소득층 여학생들에게 생리대 키트를 기부하는 ‘We대한 상자’ 캠페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모금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 저희 직원들이 처음으로 ‘임팩트 보고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잘 만들었다고요. 올해 산하시설들을 돌면서 계속 했던 말이 ‘기업가정신으로 일하자’였어요. 사회문제가 복잡해지고 AI와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달하면서 비영리와 사회복지도 변화의 흐름 한가운데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자원을 최적화해 헤쳐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요.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 도전하면서 방법을 찾는 ‘기업가정신’이 비영리에도 필요합니다.”

김시원 TheButter 기자

## 혁신 칼럼

### 사회적 경제를 모르는 당신에게

‘사회적경제’가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정의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윤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경제 활동’이라고 설명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먼저 ‘경제’라는 단어를 봅시다. 영국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은 경제학을 “인간의 일상생활을 연구하는 학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셜의 말에 비추보면 경제는 곧 ‘일상’이죠. 이번에는 ‘사회적’이라는 말을 살펴봅시다. 영어 Social(소셜)을 번역한 단어로 ‘사람’, 즉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즉 사회적경제는 ‘우리 모두를 위한(행복한) 일상’으로 풀이될 수 있죠.

사실 어떤 대상이든 한 문장으로 귀결해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생각해 볼까요? 전화를 사용해도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온 세대라면 스마트폰을 단순히 통신기라고 볼 수 있지만 사용자에게 따라 게임기, 소셜미디어 탐색 도구 등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다양한 관계자가 얽혀있는 사회적경제도 한 단어나 표현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공공과 기업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예를 들어 R 기업은 합부로 버려지는 전자 폐기물을 재활용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한편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B 기업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경 사업과 카페를 운영합니다. G 기업은 스마트 팜을 활용해 미래 먹거리를 해결하며 시니어와 취약계층을 고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합니다. A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와 이동약자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모습을 한 기업들을 통틀어 ‘사회적 경제조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사’ 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졌습니다. 해결해야 할 사회·환경문제가 심화되어 어느 한 조직의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이를 ‘난제(Wicked Problem)’라고 부릅니다.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공동의 목표(Common Goal)를 정하고, 자원 및 전문성을 상호 공유해 마치 한 팀인 것처럼 일하는 방식, 즉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가 중요해졌습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인 ‘임팩트솔루션센터’를 통해 경기도 내 집합적 임팩트를 실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사업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폐휴대전화를 기부하면 이를 파쇄·분리해 재활용하고 기부자에게는 기부영수증이나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는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삼성전자, CJ대한통운, e 순환 거버넌스, 자활기업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기업은 ESG 성과를 창출하고 자활기업은 일자리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함께라면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비관론자 중에서 우주의 비밀을 발견하거나, 신대륙을 탐험하거나, 인류를 위해 새로운 진보를 이룬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얽힌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건 ‘이타적 관주의자’입니다. ‘모두를 위한 행복한 일상’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지속가능한 세상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 장애인 근로자, 이직을 꿈꾸다

“월급에서 80만원을 저축해요. 나머지는 부모님 용돈 드리고, 핸드폰 요금도 내고, 맛있는 것도 사 먹어요. 돈 모아서 언젠간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갖고 싶어요.”

중증 발달장애인 김우상(가명, 23)씨에게 삶의 목표가 생긴 건 작년 1월. 전 직장을 떠나 지금의 회사로 옮기면서. 주 40시간을 일해도 월급 90만원을 받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월 200만원을 받는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입사한 첫 직장은 경기 화성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협회 생산시설이었다. 입사 초기 우상씨는 일에 대한 열의가 크지 않았다. 돈을 왜 벌어야 하는지, 왜 출근을 매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고민 본 적이 없었다. 그런 우상씨가 커리어 욕심을 내기 시작한 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진행되는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우상씨 곁에서 업무와 직장생활 적응을 돕는 전담 인력도 생겼다. 업무상 잔실수가 줄면서 성취감도 처음 맛봤다. 직원들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다. 덕분에 우상씨는 첫 직장인 1년9개월 동안 근속했다.

지금은 마스크 제조 기업인 씨엘씨컴퍼니에서 일한다. 마스크를 5장씩 비닐에 넣고 열을 가해 봉합하는 작업을 한다. 최희정 씨엘씨컴퍼니 반장은 “우상씨는 오전 8시에 업무 시작인데 6시 50분에 출근할 정도로 성실하다”며 “손이 유독 빨라서 정해진 물량을 불량 없이 납품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을 통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최중증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연도록 지원한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2022년 기준 약 1만명이다. 이 중 대부분은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한다.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은 2019년 문제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듬해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근로장애인의 업무 능력과 사회적 향상을 지원해 일반 사업체에서도 비



발달장애인 김우상(가명, 23)씨가 경기 화성 씨엘씨컴퍼니에서 마스크 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

장애인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지원은 ▲전환 준비 ▲취업 ▲취업 후 고용안정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전환준비 과정에서는 장애인 근로자가 업무와 사회생활의 기초를 익힐 수 있도록 직무지도원을 통한 밀착 지원이 이뤄진다. 직무지도원은 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개별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 업무가 손에 익을 때까지 반복 훈련을 실시하기도 한다. 외부 강사를 파견해 태인과 의사소통할 때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 직업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위생 수칙, 자기 관리 방법 등에 대한 별도 교육도 한다.

본격적인 취업 단계에서는 ‘취업 성공 패키지’ 등 다양한 취업 지원이 제공된다. 비장애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보다 좀 더 친절한 방식이다. 구

체적으로 면접을 앞두고 실전 연습을 진행하고, 면접 당일에는 면접 장소에 동행하면서 근로장애인의 긴장을 풀어준다.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직업재활시설을 떠나 일반 기업으로 일자리를 옮기는 걸 두려워하는 장애인에게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추가적인 직업 훈련, 취업 알선, 견학 등도 지원한다. 취업에 성공한 후에는 근로지원인 제도를 통해 새 직장에 적응하기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전 지원은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체 모두에게 특히 만족도가 높다. 적은 급여를 받는 장애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전환 준비 단계에서의 고용전환 촉진 수당을 지원한다. 기업에서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근로자는 3개월 동안 총 100만원,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75%를 최대 3년간 지원받는다. 취업 후 안정적으로 새 일자리에 적응하도록 하는 유인이 되는 셈이다.

전환지원 사업을 거쳐 일반 사업체에 취업한 장애인은 299명에 이른다. 2020년 사업 시작 당시 3.6%였던 전환 성공률은 지난해 약 10%로 증가했다. 조항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전환지원 사업은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최중증 장애인 근로자가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장애인과 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해 최저임금을 받는 장애인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모든 장애인이 어디서 일하든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경력이 쌓일수록 더 많은 월급을 받는 등 적절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장 적응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지은 TheButter 기자

# “위기가정 3일 만에 지원한다”

## 이랜드복지재단 ‘SOS위고’

“하루에 한 끼 먹거나 며칠씩 굶기도 했어요. 집에 가스,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잠들면 바퀴벌레가 귀에 들어갈 것 같아 눈도 못 감았어요.”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엘레나(가명·18)양은 작년 8월까지의 생활을 떠올리며 몸서리쳤다. 아프리카 기니비사우 출신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엘레나와 두 동생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함께 지냈다.

그마저도 길게 이어지진 못했다. 지난 2021년 아버지가 “대전으로 일하러 간다”며 떠난 후 미성년자인 세 자매는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다. 아버지가 떠난 후 알게 된 현실은 더욱 참담했다. 월세는 5년 넘게 밀려있었다. 아버지가 체납한 자동차세와 벌금도 900만원이나 됐다.

세 자매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엘레나의 학교에서 매월 30만원씩 나오는 장학금으로 근근이 버텼다. 설상가상으로 집주인은 보증금이 바닥났으며 ‘퇴거’를 요구했다. 길바닥에 그대로 나왔을 위기였다. 그때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포천 하랑센터’를 운영하는 박승호 센터장이 세 자매를 발견했다. 박 센터장은 경기 포천의 센터 근처에 집을 구해주고 아이들의 전학을 도왔다. 자매들의 사정을 확인한 뒤, 자매가 재단 관계자와 만난지 3일만에 일어난 변화다.

주거비로 300만원, 생계비로 240만원이 들었다. 이렇게 큰돈이 빠르게 마련될 수 있었던 건 이랜드복지재단 덕분이다. 박 센터장은 재단이 운영하는 ‘SOS위고(이하 위고)’ 사업을 떠올렸고 도움을 요청한 즉시 긴급 지원이 이뤄질 수 있었다. **긴급 지원에 ‘3일 심사’… 국내 최단기간**

이랜드복지재단은 1996년부터 ‘인큐

베이팅’이라는 이름으로 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2022년부터 ‘SOS위고’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빠르게 사회적 고립과 빈곤의 수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가정을 찾아내 일상으로 끌어올리는 맞춤형 지원을 받 빠르게 제공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66만명으로 집계됐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에도 불구하고 엘레나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사회적으로 고립된 빈곤층이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 제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 지원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거나 신청에서 지급까지 최대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도 있다. 당장 끼니 해결도 어려운 사람들이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를 제출하고 수개월의 심사를 기다리리란 쉽지 않다.

위고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 심사 후 3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생필품이 시급한 가정에는 24시간 내 지원하기도 한다. 정영일 이랜드복지재단 대표는 “위기를 버틸 힘이 부족한 빈곤층 지원엔 ‘골든타임’ 사수가 필수적”이라며 “국내 최단기간인 ‘3일 심사’를 도입해 위기가정의 일상 복귀를 실질적으로 이뤄내고 있다”고 했다.

지원 범위는 임대보증금, 월세, 생필품 등 의식주부터 자녀교육비, 의복비, 주거환경개선비, 간병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분야까지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주거비와 생계비로는 최대 300만원, 의료비는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한 가정당 최대 지원금은 700만원이다. 정영일 대표는 “위기가정의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열어놓고 있다”며 “‘한 가정의 무너짐을 막는 긴급 지원’이라는 목표에 맞게 최대한 유연하게 운



이랜드복지재단 제공 위기가정 긴급지원 프로그램 ‘SOS위고’를 통한 지원을 받고 난 뒤 밝아진 엘레나(가명)와 동생들의 모습. 사진 위 글귀는 엘레나가 재단에 보낸 감사편지에서 따왔다.

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폭넓은 지역 네트워크도 위고의 장점 중 하나다. 전국의 사회복지단체 관계자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들은 위고 사업에 언제든지 신청서를 넣을 수 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지만 공적 복지체제로 지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이들의 사연과 필요한 내용을 재단에 제출하는 식이다. 이정민 SOS위고 현장매니저는 “위기가정 당사자들은 스스로의 상황과 필요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면서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회복지 종사자나 공무원 등이 나서서 이들을 발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

했다.

네트워크의 또 한 축은 ‘위고 봉사단’이 맡고 있다. 엘레나 자매를 긴급 지원할 수 있던 것도 봉사단 소속의 박승호 포천 하랑센터장 덕분이다. 위고 봉사단은 공익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종교인, 비영리단체활동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직접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사후 모니터링까지 진행하는 구조다. 엘레나 자매는 센터 인근에 거주하며 박 센터장과 일상을 공유하며 지내고 있다.

**충충한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이후 자립률 90%**

지원 대상자들의 면면은 다양하다. 보

호자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미성년자를 비롯해 사회초년생, 중장년층도 있다. 재단 관계자는 “위기가정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라며 “충충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라고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60대 남성 박명환(가명)씨다. 자영업자로 아내,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던 그는 어느 날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며 심각한 지적장애를 얻었다. 아내는 이혼을 통보했고, 지금은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 없다. 오갈 데 없어진 박씨는 지방의 한 농장에서 축식을

제공받는 대신 농사일을 하며 지냈다. 축소는 전사 옆 창고였다. 화장실은 없었다. 10년 이상 일했지만, 임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농장주는 박씨에게 고된 농사 일을 강요했고, 보다 못한 지자체 관계자가 나서자 농장주는 박씨를 쫓아냈다.

재단은 위고를 통해 박씨에 대한 주거 지원을 결정했다. 십수년 만에 제대로 된 집에서 잠잘 수 있었다. 그는 “매일 씻을 수 있어 너무 좋다”고 했다. 지금은 장애 인복지권을 다니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자립의 희망을 얻은 건 정미나(가명)씨도 마찬가지다. 6년 전 어머니 사망 이후 삶의 의미와 경제력을 모두 잃었다. 창문조차 닫히지 않는 고장난 차량 안에서 생활하던 그는 위고 사업에 선정된 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정씨는 재단에 보낸 자필 편지에 “발 쪽 뺨고 잠자고, 씻고, 빨래하고, 안전한 지붕이 있는 실내에서 살 수 있게 됐다”며 “경제적, 정신적 문제 모두를 잘 풀어나가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편지지 위 민아씨의 글씨는 정갈하고 단정했다.

위고 사업 이후 자립에 성공한 사례는 전체의 90%에 이른다. 재단은 위고 사업을 통해 발굴한 다양한 복지 사각지대를 매울 추가 사업도 진행 중이다. 임직원 직접 주거환경 개선이나 멘토링, 교육 등 봉사활동에 나서거나, 관련 공익단체들과의 협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재단은 앞으로도 위고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지원 활동을 지속해 계획이다. 정영일 대표는 “복지 정책이 변하는 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며 “이들을 위기에서 일상으로 끌어올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다.

박선하 TheButter 기자

## 복지사각지대 살피고 충충히 메운다

### 신한 희망사회프로젝트

“한국인이지만 외국인 남편과 결혼하면서 국적을 변경한 사례자였어요. 가정폭력과 우울증에 아이 교육비도 없는 형편인데, 공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려면 3~6개월 걸린다고 해서 당장 지원할 수 있는 민간사업을 연결했습니다.”

장하은 굿네이버스 대전충북사업본부 대리는 총청권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사연은 제각각이지만 현행 복지 체계로 구제받기 어려운 사례들이 많다. 장 대리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계가 어려워지면 자녀 교육비나 의료비를 줄이게 되는데 발달장애인 치료는 때를 놓치면 회복도 더딜 뿐 아니라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다”며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그룹은 굿네이버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주거비 ▲교육양육비 ▲의료비 ▲재해·재난구호비 등으로 현금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위기상황과 재기가능성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매 주 심사하고, 지원이 결정되면 열흘 안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2018년 사업 첫해 이후 지금까지 5552가구 1만7111명이 지원받았고, 지원금 규모는 누적 94억8000만원에 달한다. 지원 이후 6개월, 길면 1년을 추적 관찰하면서 변화를 살핀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서는 50만~100만원 정도 적은 금액이라도 많은 사람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최근에는 한 가정의 눈에 띄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생활비와 의료비 등 여러 항목을 지원하는 추세다.

신한금융그룹에서 집중하는 건 가정 지원이다. 위기가정 지원뿐 아니라 학대피해 아동과 치료·보호를 위한 쉼터를 지원하는 이유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는 2만7971건이다.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82.7%에 이르고,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비중이 81.3%를 차지했다. 학대판단 사례 중 10%에 대해서는 피해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의 수는 총 50명으로 파악됐다. 전체 사례 중 재학대 비중은 16%로 전년보다 1.3%p 증가했는데, 아동학대로 판단된 이력이 있는 가정에 대한 관리 강화로 재학대 사례가 보다 적극적으로 발견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대피해지원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피해 아동에게는 병원 진료나 심리 검사 등 의료 지원이 이뤄진다. 쉼터 보호 기간에 학습과 예체능 활동을 위한 지원금도 마련된다. 원가정으로 복귀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대상으로 심리 치료를 지원한다.

2021년부터 시작한 ‘신한-SOL Guard’는 학대피해로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이들에게 초기 적응을 지원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의료비, 심리치료비, 생필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년간 총 3345명을 대상으로 25억1840만원을 투입했다. 같은해 시작한 ‘신한-SOL Mate’는 학대 후유증으로 신체, 정서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아이들을 위해 쉼터에 차량과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189개소에 6억원을 지원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앞서 2월 임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사회공헌 캠페인 ‘술선수범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다. 첫 사업으로 선정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으로 1억9470만원, 두 번째 사업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을 선정했다. 이후 임직원 기부를 통해 약 8000만원의 성금을 모았고, 여기에 그룹의 기부금을 더해 1억5000만원을 굿네이버스에 후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한금융희망재단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사업 ‘신한 꿈도담터’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140개소를 마련했고, 약 115만명이 상시 이용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총 200개소 설치해 돌봄 대상도 기존 초등생에서 영유아를 포함한 미취학 아동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꿈도담터에서는 아동들을 위한 금융 교육과 코딩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에게는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문일요 TheButter 기자

## “온마을 변호사, 아동 권리 지킵니다”

### ‘온마을 로(Law)’ 성과공유회 24일 코리아나호텔서 개최

임영화(가명)씨는 초중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동학대 피해자다. 여덟 살 때 이미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고, 학대 조사도 받았지만 적절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학교도 교육청도 장기결석하는 그를 관리하지 않아 교육 범위는 포괄한 아동학대 피해는 깊어졌다. 영화씨는 부모의 집에서 도망 나와 아동학대를 신고했고, 재판에서 아동학대가 인정됐다. 영화씨를 대리한 변호사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동학대 피해에 대해 국가와 공공기관의 책임을 묻는 첫 번째 소송이다.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 ‘온마을 로(Law)’ 성과공유회가 열린다. 사단법인 두루는 지난 2022년부터 삼성생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온마을 로 사업을 시작해 2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번 법률지원 사업에 참여한 변호사를 ‘온마을 변호사’라고 부른다. 두루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온마을 변호사 35명이 총 364건의 활동을 맡아 진행했다.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에 투입한 시간은 총 5095시간에 이른다.

두루와 온마을 변호사 그동안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이주배경아동, 출생등록되지 않은 아동, 학교밖·가정밖 청소년, 수용자 자녀, 법을 위반한 아동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많은 아동·청소년을 만났다. 온마을 변호사들이 맡은 사건 중에는 이주배경아동의 국적 취득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도 있었다.

대리인단이 만난 김수아(가명)씨는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수아씨 출산 전에 이혼하게 됐는데, 외국인 어머니는 혼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한국의 출생신고 제도는 한국 국적 남성의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온마을 변호사는 한국인이지만 출생신고 절차를 밟지 못한 수아씨의 국적 취득과 동시에 어머니가 딸을 양육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두루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익법률지원단 구성해 공익변호사의 상담, 자문, 변론 등 법률 활동을 지원하고 피해자 지원과 제도 개선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당사자인 사건에서의 법률구조, 피해 아동의 권리 구제를 통한 법령·제도 개선,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익사건 등을 수행했다.

문일요 TheButter 기자



# “아무도 뒤에 남지 않도록,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 [비영리 리더 20인, 더버터에 바란다]

조선일보 공익섹션 더버터(The Butter)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1호 발행을 맞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영리 섹터 리더 20인에게 공익섹션에서 다뤄야 할 주제, 취재가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리더들은 사각지대를 살펴달라고 했습니다. 혁신적인 솔루션을 찾아내 확산해달라고 했습니다. 소셜섹터 이해관계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소셜섹터에 대한 애정과 고민이 담긴 리더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름 가나다순) 정리=더버터 취재팀

### ■강대성 대한사회복지회장

저출산, 고령화, 고독사, 은둔형 외톨이 등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사회 문제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을 챙겨야 합니다. 낮은 곳을 취재해 문제의식을 확산하고 해결책을 도모하는 역할을 해주세요. 대화가 사라진 시대, 사회구성원 간 소통의 장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전쟁, 빈곤, 재난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아이들이 끔찍한 폭력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아동 관련 취재와 보도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사를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깨어 있도록 도움을 주길 바랍니다.



### ■임성택 사단법인 두루 이사장/범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우리 사회에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1층 공중이용시설에 출입할 수 없는 장애인,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 불법체류자라는 낙인이 찍힌 미등록이주민,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수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뒤에 남겨지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두루 살피는 기사 부탁드립니다.



### ■정영일 이랜드복지재단 대표이사

모두가 존엄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대중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더버터가 심층취재를 통해 대안이 될 만한 모델과 솔루션을 제시해 주세요. 나아가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 ■최창남 기아대책 회장

사회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문제 해결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특히 국내외 복지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의 이야기를 조명해 주세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사를 기대합니다.



### ■김의옥 한국중장자자원봉사센터장

인구 구조의 변화,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나오는 다양한 혁신의 흐름을 깊이 다뤄 주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기획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에게 더버터가 사회적 영감의 원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육심나 카카옴팩트 사무총장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기사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버터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새로운 변화가 기대됩니다. 카카옴팩트도 세상을 바꾸기 위해 도전하는 혁신가들의 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장재연 쇼과나눔 이사장

인류는 서로의 아이디어를 모방하고 전파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왔습니다. 환경과 생태 분야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범 사례들을 발굴해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 주세요. K팝과 K드라마를 넘어 'K공익' 시대를 열어 모든 생명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우리나라는 저출생, 고령화 등 지속가능성을 위협받는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협력과 여정'이라는 더버터의 의미처럼 소셜섹터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정부와 기업, 비영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기부제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기부금품법 및 세법 개정의 논의가 한창입니다. 현금뿐 아니라 전자화폐·부동산·주식 등 기부대상 물건의 확대, 부동산 및 유산기부제도 변화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변화의 맥락, 선진국 제도, 한국적 접근 방식 등을 다뤄주세요.



### ■김종근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NGO, 재단, 기업, 시민 모두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공익 분야의 새로운 소식을 다각도로 소개하면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기사를 기다립니다. 사회의 관심이 닿지 않았던 소외계층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 주세요.



### ■윤세리 사단법인 온을 이사장/ 범무법인 윤촌 명예 대표변호사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리는 것은 공익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버터의 솔루션 저널리즘 활동을 통해 공익 분야의 트렌드와 새로운 시도가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공익분야 이해관계자들이 협업할 수 있는 장(場)을 만들어주세요.



### ■정갑영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장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NGO, 재단, 기업, 공공, 시민단체에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세요. 인류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도 더버터와의 뜻깊은 협업을 기대합니다.



###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

세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루는 매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늘 생각해 왔습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책임을 옹기 있게 말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담아주세요.



###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

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등 복잡한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버터가 제시할 공동체에 대한 담론은 연대를 통한 해법을 찾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미래세대인 '아동'에 관한 예리한 통찰과 대안을 기대합니다.



###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

비영리스타업을 비롯한 비영리조직 활동가들은 오늘도 치열한 현장에서 묵묵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비영리 생태계의 많은 이야기가 더버터를 통해 널리 퍼져나가길 희망합니다. 때로는 날카롭고, 때로는 따뜻하게.



### ■이은영 국제구조위원회 한국사무소 대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때로는 거대한 도전처럼 느껴지지만, 뜻있는 발걸음들이 하나둘 모이면 반드시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Build the world better'는 더버터와 국제구조위원회의 공통된 꿈입니다. 인도적 위기에 맞서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찾는 국제구조위원회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 ■정무성 현대차정몽구재단 이사장

기후위기, 초고령화, 지역 불균형 등 사회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소셜섹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공익섹션 더버터가 제공하는 차별화된 콘텐츠, 의미 있는 정보, 통찰력 있는 분석이 소셜섹터의 성장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 ■최운정 열매나눔재단 사무총장

선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기 위해 비영리 섹터가 고민해야 할 이슈에 집중해 주세요. 그중에서도 저소득 취약계층이 겪는 새로운 문제 상황과 해결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격차 해소, 사회통합적 지원 방안, 지속가능한 일자리, 경제적 자립 이슈에 관한 내용을 다뤄주세요.



### ■허재형 루트임팩트 대표

사회·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어느때보다 협력과 연대가 절실합니다.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행동하도록 하려면 솔루션저널리즘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더버터가 제시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협력의 길을 기대하며, 솔루션저널리즘의 가치를 실현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혁신적 아이디어, 사회공헌 사업이 되다

### 2024 사회공헌 파트너스데이

발달장애인 디자이너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회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열린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오는 9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장애예술인과 함께하는 배리어프리 전시회' 개최를 목표로 발달장애인 디자이너 양성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발달장애인 디자이너를 육성하고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키무스튜디오'와 손잡고 진행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양민영 한국건강관리협회 사회가치혁신부장은 "지난해 전시는 관람객 1만 6000명 넘게 다녀갈 만큼 성공적이었다"면서 "발달장애인 작가에 대한 지원이 사회적으로 더 필요한 상황이라 2년 연속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는 디자인 전문 교육을 받은 발달장애인 15명이 비장애인 디자이너와 협업해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키무스튜디오는 지난해 9월 개최된 '2023 사회공헌 파트너스데이'에서 만나 사회공헌 사업을 함께 하게 됐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는 사회공헌 파트너스데이는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단체와 새로운 사회공헌을 준비하는 기업을 연결해주는 행사다. 사업제안 발표회에서 만난 단체와 기업이 파트너십을 맺고 실제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는 성과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오늘(23일)부터 나흘간 코엑스 팝업스토어에서 열리는 무료 전시회 '원더풀한 원더랜드'도 파트너스데이가 낳은 성과물이다. 티머니복지재단과 키무스튜디오는 '대중교통을 이용시 교통약자를 배려하자'는 메시지를 발달장애인의 작품으로 표현하는 전시회를 기획했다. 티머니복지재단 관계자는 "작년 전시와 달리 올해는 아트웍 제작 과정을 알아보는 원화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전시회 기획의도와 작품 설명을 담은 기획영상도 온라인으로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파트너스데이 행사에서 매칭된 LG디스플레이와 소셜트립 전문 스타트업 플래닛주민센터는 지난 3월 휴가와 봉사활동을 접목한 '볼런케이선'을 진행했다. 임직원 1박2일 휴가를 활용해 인구 소멸지역에서 봉사활동과 지역문화 체험을 병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경기 여주 화평마을에서 진행된 올해 볼런케이선에서는 임직원 82명이 감자 농가 일손을 돕고, 목공 작업물을 마을에 기부하기도 했다.

협력과 연대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파트너스데이 행사가 올해도 개최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2024 사회공헌 파트너스데이'에 참여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올해 파트너스데이는 사회공헌센터와 더버터가 주관하며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이 후원한다. 공모 대상은 창의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기관,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공공기관 등이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조직은 총 3개월간 역량 강화를 위한 파트너 교육, 멘토링, 사업 컨설팅을 받게 된다. 이후 임팩트 조직과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가 네트워킹하면서 상생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원한다. 오는 9월 25일에는 사업 연계를 위한 제안발표회가 열린다. 사회공헌 사업 파트너를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자리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 4팀의 우수사업제안팀을 선정하며 ▲최우수상 700만원(1팀) ▲우수상 500만원(1팀) ▲장려상 300만원(2팀)의 상금을 시상한다. 모집 마감은 6월 2일이다. 접수 방법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 홈페이지(crc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일요 TheButter 기자

## 2024 사회공헌 파트너스데이 참여 단체 모집합니다

- ▲접수마감: 6월 2일(일)
- ▲공모대상: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비영리단체, 사회복지기관 등
- ▲공모주제: 복지,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 \*바로 실행 가능한 사업 아이디어 우대
- ▲접수방법: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crckorea.kr) 공모 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접수
- ▲프로그램

- 사업제안팀 OT: 6월 28일(금)
- 파트너 교육 및 사업 컨설팅: 7~9월
- 사회공헌 파트너스데이 제안발표회: 9월 25일(수)
- ▲참가혜택
- 본선 진출팀 시상: ▲최우수 700만원(1팀) ▲우수 500만원(1팀) ▲장려 300만원(2팀)
- 실질적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멘토링 제공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 파트너스데이 기관' 인증서 수여
-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와 네트워킹 제공
- ▲문의: (02)3789-7863, thebutter@chosun.com

